

# 2017년 EAACI congress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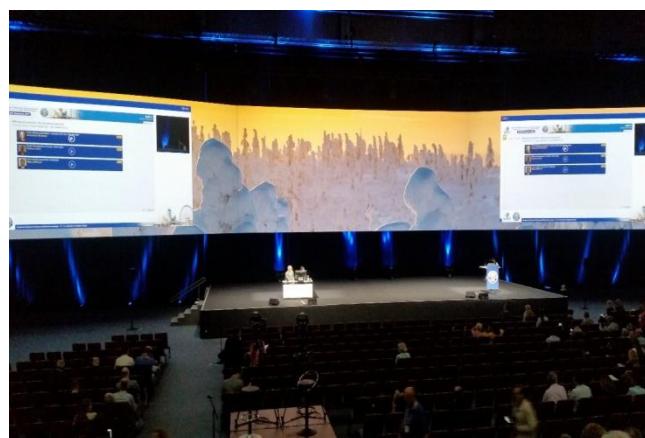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전임의 정창규

2017년 EAACI (European Academ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congress는 2017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북유럽인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 천식알레르기내과 학회의 지원으로 2016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AAACI (Asia Pacific Association of Allergy, Asthma and Clinical Immunology) 세계 알레르기내과학회에 알레르기내과 전임의가 된 후 처음으로 참석할 수 있어 감사하였지만 학회 참석 후 조금 더 큰 규모의 학회에서 많은 강의를 듣고 싶은 욕구가 늘 있었다. 그래서인지 올해 초에 EAACI congress에 초록을 접수하고 나서부터 유럽알레르기 학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학회 프로그램을 확인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헬싱키는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도시지만 기차와 트램(Tram)이라는 대중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20-30분 거리에 거의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며 평일에도 지나가는 차가 별로 없어 학회장과 반타공항(Vantaa airport)으로 이동 시에 교통정체를 느낄 수 없었다. 학회가 열리는 시즌은 하지 무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선선한 봄 날씨 정도로 도시 전체가 쾌적하고 조용하였고 밤이 되도록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 초저녁 같은 새벽을 경험하였고 해가 일찍 뜨다 보니 커튼이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학회는 헬싱키 Pasila역 근처에 위치한 Messukeskus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고 동시간에 15~20개의 프로그램이 한번에 진행되는 형식이어서 혹여 듣고 싶은 강의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숙소에 도착한 날에는 다음날부터 들을 프로그램을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쳤다. 도착한 학회장은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였으며 흡사 전자제품의 신제품 발표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큰 규모의 학회였지만 많은 봉사자들과 체계적인 나뉘어진 구획으로 많은 강의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Plenary session에서는 임상적인 내용뿐 아니라 Biology와 Immunology에 대한 주제들도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접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전부터 아주대 병원의 최영우 박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microbiome에 대한 session이 따로 만들어



져 있어 이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연구 주제는 비슷하다고 생각되었다. Poster discussion session에서는 흥미로운 주제인 poster를 학회에서 선정하여 발표자가 발표하고 해당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추후에 훌륭한 발표자를 선정하여 상금도 수여하였다.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자리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띤 토론, 날카로운 질문과 그것을 받아내는 발표자의 대처 능력을 볼 수 있고 아직 활발한 토론 문화가 부족한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면 좋은 형식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발표 포스터를 단순히 전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명의 진행자들이 진행을 하면서 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포스터 전시관에 있지 않더라고 그 내용과 토론 과정들을 휴대폰 앱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학회 마지막날 발표된 선정자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수님들과 많은 선생님이 있어 뿌듯하였고, 같은 실험실에서 공부 중인 베트남 출신 의사 Tu 학생이 발표한 AERD환자의 기도상피세포에서 분비된 높은 Folliculin이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주제가 선정되어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을 알기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낼 수 있었다.



귀국 전날인 20일 저녁에 있었던 Korean night는 핀란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진행되었다.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하셔서 자리가 없을 정도였고 한국 식당은 개점 이래 가장 많은 손님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선생님들과 일일이 깊은 인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타지에서 만나는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은 더욱 반가웠고 귀한 말씀을 듣고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기름진 음식이 지겨워 지던 무렵에 맛보는 김치, 육개장, 불고기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잘 먹지도 않던 소주가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고 같은 테이블에 계시던 교수님들과 마시면서 핀란드에서의 맛이하는 마지막 저녁을 거나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오전에 있었던 uncontrolled asthma session 의 첫 강의는 아주대 박해심 교수님이 진행하셨다. 비록 심한 감기로 몸상태가 좋지 않으셨지만, 이번 학회에서 한국에서의 유일한 연자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이런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행운이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번 학회를 통해 모든 강의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알레르기 면역학의 최신 연구 경향을 확인하고 논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계 저명한 인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유럽의 토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뜻 깊은 시간이었다. 현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많은 준비를 통해 다음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세계 학회에 참석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